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

박혜성*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박현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고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살피고 그 함의를 찾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가야 할 연구 및 실행 방향 탐색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전문(등재) 학술지에서 최근 2000년부터 2013년까지(13년간) 발표된 총 4,970편의 논문 중 다문화가정, 다문화 교육 등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총 46편 선정하여 분포,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의 주제 및 유형(6개의 하위 주제와 5개의 범주 유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논문의 발생분포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인 2007년부터 발표되기 시작되어 증가하거나 유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학령기 이후 성인 대상(28%)과 학령전기 영유아(26%), 학령기 아동(17%) 순이었으며, 성인기와 학령전기 대상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고, 서로 다른 연령대상이 병합된 통합 유형이나 문헌 분석 등의 기타유형(2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연구 대상의 유형에서는 '유아나 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과 '유아·아동·성인 각각의 단일 집단 유형'이 동일하게 가장 우위를 나타내었고(각 26%), 다문화가정장에 자녀 대상 연구의 유형은 매우 적은 편(13%)이었다. 셋째, 연구 방법에서는 '비교'와 '조사'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양적 연구 방법이 76%로서 편중된 연구 방법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넷째, 분석대상논문들을 통해 총 6개의 하위 주제와 5개의 연구 내용 범주(특성·조사·중재·평가관련·기타 연구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중 언어 사용자의 '발달/능력이나 특성'과 '다문화 관련 인식 및 경험, 그리고 요구'가 가장 크게 우위를 차지(각각 50%, 22%)하여 중요시 되고 있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정 논문들에서 제시된 연구 핵심어(주제어)는 총 78개로서 언어, 인지, 적응 등의 '발달 및 특성' 관련 주제어와 '다문화' 포함 주제어가 역시 높은 출현 빈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정 및 아동, 연구 대상과 유형,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연구 동향

* 교신저자(hspark01@yd.ac.kr)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회자되거나 언급되고 있는 용어중의 하나가 ‘다문화(multiple cultures)’이다. ‘다원적 문화(multi-culture)’란 근원이 다른 여러 개의 문화를 의미하며 사회의 동질성, 인종적·민족적 기반, 외부와의 경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단일문화(monoculture)’와 상치(相馳)하는 개념이다(구정화, 박운경, 설규주, 2010). 우리나라 또한 오늘날 한 사회 속에서 인종·민족·계급 등에 따른 여러 집단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2007년 8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이주민 비율이 전 인구의 2%라고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서는 외국인거주자가 100만 명을 넘어 2014년 1월 기준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인구 100명 당 3명 꼴인 약 150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또한 국제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로 살펴볼 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상의 2012년도 집계로 약 26만 6천여 가구(266,547)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정도 -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약 26%와 27%를 차지하여 전체의 반 수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는 약 5% 전, 후의 비율로서 인천, 경남, 부산과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증가된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구 수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 또한 2012년도에 파악된 바로 66,536명이고, 연령별 분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산되지 않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 수까지 감안해 보면 현재 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kosis, 2014). 이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입학생 중 1명 이상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그 구성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로서 관련 부처의 최근 자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4; 충북교육청, 2014). 즉 이러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 5년마다의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율이 약 3배 정도의 추이이고 2013년도 기준 전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 또한 55,780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학령 학생 수(6,529,196명, 전년도보다 약 20만명 감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양상과는 달리 매년 6~8천여 명이 증가하는 대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문화 학생의 구성비에서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7% 정도로 가장 높고, 도시 거주 학생이 64.5%, 농촌 거주 학생이 3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2008년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제정)에 의해 최초로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던 여성가족부(2009)의 ‘2009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조사’ 내용에 따르면(kosis, 2012), 장애등록 분석대상 전체 인원

115,305명 중 등록장애인 자녀 비율이 5.7%(6,572명)로서 이 인원은 해당 년도인 2009년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상의 특수교육대상 배치학생 총 인원 75,187명의 약 9%에 해당되는 인원임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2012년도 최근의 조사(표본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가족)의 장애 자녀 비율이 11.2%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kosis, 2014; 교육과학기술부¹⁾, 2009).

사실상 과거 우리나라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이라는 가치 하에서 많은 다문화 관련 대상자들에게 차별이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해 오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내 국제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성공한 혼혈인(미국, 하인즈 워드)의 방문계기 등으로 점차 “사회 통합의 대상”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제16대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회의 ‘여성결혼 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2006)’을 필두로 법무부의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자녀(학생) 교육지원정책(2006, 2007, 2008)’,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및 여성가족부의 정책 공조(2010년 3월, 다문화 가족·청소년·아동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2017년에 걸쳐 1, 2차 ‘다문화가족정책’ 진행) 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등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 정책 그리고 지원 사업의 주축을 이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 인구가 2020년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을 예상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또한 ‘열린 다문화 사회로의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1차 년도(2010~2012) 비전에서 현재의 다문화가족구성원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2차 년도(2013~2017) 비전과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 5. 2.)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유네스코가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고 ‘문화다양성 협약(2005)’을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가 됨으로써(2010년 7월 정식 발효), 이러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정부의 각 처 및 여러 기관이 다시 정비됨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의 관심의 고조를 이끌었고, 더욱더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외의 여러 분야 즉 교육, 정책, 사회, 장애 및 치료 등의 다양한 세부 영역과 주제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발표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1) 현 ‘교육부’로서 2009년 당시 정부 부처 명칭임.

국내 교육 분야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가정이나 그 자녀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또는 사회 부적응 등에서 비롯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과 중심을 두고 연구들이 진행·보고되어지고 있다(박지윤, 박상희, 석동일, 2007; 박민정, 이병인, 2010; 배소영, 김미배, 2010; 오성배, 2007; Cartledge et al., 2009; Green, 2010; Law, Garrett, & Nye, 2004).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학생)들은 가정에서와 학교에서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초래되는 의사소통과 언어의 문제(언어발달의 지연이나 장애)에 우선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또 언어를 토대로 형성되는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가짐으로써 학습부진과 학습 장애는 물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발달상의 실패와 함께 정서 및 행동 문제 및 장애 등 다양한 특수교육과 관련 지원이 요구되는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강금화, 황보명, 2010; 김동일, 2012;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Cartledge et al., 2009).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고유한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오해나 편견 또는 부모와의 상담이나 연계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평가와 교육 및 지도 영역에서의 문제(예, 판별에서의 과잉판별이나 오류, 낮은 기대감 등)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동일 외, 2013; 이정은, 2012; Chu, 2011; Webb-Johnson et al., 1998).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사회의 인종 구성적 측면과 함께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또한 장애의 발생과 분포에 있어서 다문화 변인과 사회계층적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김이선, 2014; 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고로 한국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과 변화의 기조 속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되는 다문화가족 등록장애인 자녀의 인구를 의식하며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살피고, 아울러 다문화가정 장애(위험) 학생의 평가와 교육에 기여하면서도 일반교사 및 타 전문 영역과의 협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소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의 내용과 현황을 살피고 그 함의를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 속에서, 최근 특수교육 분야의 학술지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및 진단·평가, 그리고 교사교육과 관련한 문헌 고찰이나 연구 동향 분석이 발표된 바 있다(정은희, 김태강, 박윤, 2012; 엄수정, 원종례, 2012). 하지만 그 수가 두 편에 그쳐 매우 적고, 또 특정 영역과 주제로 좁혀져 있어 ‘다문화’와 관련된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또 2000년도부터 2012년(10월) 사이에 언어장애 관련 두 학술지(언어치료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에서 발표된 다문화가정 및 이중언어 사용 아동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박혜성(2013)의 연구는 두 학술지 모두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의 언어문제를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각이 중심이 됨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도 국내 전문 특수교육학술지(등재)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특수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와 실태 그리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그 분석 내용 등을 숙고해 봄으로써,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가야 할 연구 및 실행의 방향이나 논의점을 모색하고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 째,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논문의 연구 분포(학술지별, 년도별)의 실태는 어떠한가?
- 둘 째,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연령별, 유형별)의 실태는 어떠한가?
- 셋 째,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양적, 질적, 기타 방법)의 실태는 어떠한가?
- 넷 째,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범주(내용 특성)의 실태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연구들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 및 실행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헌 선정 기준 및 내용에 따라 진행하였다.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

첫 째, 관련 연구 대상 논문을 찾기 위해 비교적 논문의 질적 수준이 객관적으로 수용·확인되고 있는 국내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선정하였다. 즉 다수의 국내 특수교육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중에서 특정(specific) 장애 영역²⁾

2) 현재, 국내 장애 영역별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연구의 편수가 극히 고르지 않고

이나 연구 주제로 국한되지 않으면서,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연구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총 7개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선정 등재학술지인 ‘특수교육학연구(2004년 등재지 선정)’, ‘특수교육연구(2010년 등재지 선정)’,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2006년 등재지 선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2007년 등재지 선정)’, ‘특수교육(2012년 등재지 선정)’, ‘특수아동교육(2008년 등재지 선정)’, ‘유아특수교육연구(2008년 등재지 선정)’에서 연구 대상 논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 째, 관련 연구 대상 논문을 찾기 위해 핵심 주제어인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관 검색 주제어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동(영유아)이나 자녀(학생)’, ‘국제 결혼 이주자(여성)’, ‘이중언어 사용 또는 경험’을 사용하였고, ‘이중언어 사용 또는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제 1언어가 외국어가 아닌 한국어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연구 목적과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북한이탈 아동(주민)’의 언어 사용(이해) 등을 포함시켜 분석 대상 논문을 좀 더 폭넓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즉 예를 들어, 유은정 외(2012)의 “북한이탈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유적 언어 이해능력” 연구는 포함되었으나 김동일(2007)의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일차 선별하였으나 선정된 특수교육관련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셋 째,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 기간은 국내 다문화 관련 정책과 연구가 본격화되어 본 연구의 의도 및 목적을 잘 반영하여 그 동향을 살필 수 있는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13년의 기간으로 하였다. 즉 상기에서 기술한 7개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넷 째,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다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연구 목적과 주제에 부합한다면, 선택한 전문 학술지와 논문 선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의 대상과 연령, 그리고 연구 방법과 유형에 가급적 제약을 두지 않고 선별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결국, 이를 요약하면 7개의 특수교육 분야 전문 학술지를 통해 수합된 총 4,970 편의 논문 중에서, 상기의 네 가지 핵심 선정 기준인 ‘특정적인 장애영역으로 국한되지 않는 7개의 전문 특수교육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다문화와 같은 핵심 주제어 및 연관 주제어(4개) 관련 연구’와 ‘논문 선정 기간(2000~2013년)’ 및 ‘연구 목적 및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연구 논문

저조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고려함.

(예, 한국학습장애학회의 ‘학습장애연구’지의 경우, 연구 동일 기간 중 발표된 다문화 관련 논문은 1편임)

(총 46편)이 선정되었다.

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절차와 자료의 수집, 신뢰성 확보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절차와 자료 수집은 다음 4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 대상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주요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원(KSI), 누리미디어(DBpia)의 학술연구정보검색엔진과 국회도서관 및 학술지 관련 학회 홈페이지 학술자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이 중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문헌복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문헌 선정 기준에 따라 일차 선별된 논문들의 초록과 내용을 확인하여 문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 중 문헌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국제결혼가정’이나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논문(예,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구문 특성 연구) 등을 포함시키거나 ‘국외로의 한국이민자 가정’을 다루는 논문(예, 네 한인 이민자 가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유아특수교육의 전인과정에 관한 질적다사례연구)을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최종 선정된 논문들은 다시 한번 제 3의 특수교육 전공자(박사학위 소지 및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와 연구자 간의 전반적인 상호 점검과 의견 교환이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와의 관련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기준

위와 같은 ‘문헌 선정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별한 결과, 7개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총 4,970개의 논문 중에서 상기의 논문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들과 미국으로의 이민 한국가정에 대한 영문 논문 1편을 제외한 총 46편의 분석 대상 논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다문화 관련 도서, 또 관련 선행 연구(김동일, 2012; 김애화 외, 2011;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0; 박혜성, 2013; 성태제, 시기자, 2007; 조현근, 이병인, 2009; 장인실, 차경희,

2012; Bennett, 2001; Sleeter, 1987)의 고찰을 통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기준과 분석틀을 기반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자료들을 심층 고찰하여 서술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도별·학술지별 분포와 연구 대상별 유형,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범주라는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석표(틀)에 의거하여 연구 대상 논문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 빈도수와 백분율을 계산한 후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된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총괄해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연구 대상이 된 논문들의 고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주요 문헌 분석 기준(항목)들은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또한 분석 기준 및 내용 분석법에 따른 구체적인 정리 자료(내용)의 일부는 <표 2>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1> 문헌 분석기준(항목)

구분	구체적 분석 항목
분포	연도별, 학술지별 분포
연구 대상	연령별(생애주기별), 유형별(6개의 하위 유형 및 장애 관련 유형)
연구 방법	양적 연구(6개 하위 유형별), 질적 연구(5개 하위유형별), 기타 연구
연구 주제 및 범주	연구 주제(6개 하위 주제) 및 범주(5개 하위 연구 범주), 핵심어/주제어

<표 2> 문헌 분석 내용 예시(‘특수교육저널’ 지 게재 분석 대상 논문의 일부)

번호	분석 내용 저자 (년도)	연구 대상/인원수 (연령 및 지역)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방법유형)	연구 결과	연구 특성 및 연구 주제/핵심어
1	권미지·박상희·석동일 (2007)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다문화가정(母의 국적은 필리핀, 일본, 네팔)이면서 한국 이주 3년 이상) 자녀 4, 5, 6세 - 각 7, 9, 7명씩 - 23명 &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4, 5, 6세 - 각 4, 9, 6명씩 - 19명 / 총 42명 (대구, 광주, 부산 지역 거주)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과 단일언어 환경 아동들의 음운변동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음운변동 특성을 비교 분석코자 함: 두 집단에게 한국 표준 그림 조음음운 검사로 음운변동률을 평가 후, 한국어 자동화 음운변동 프로그램(Korean Automatic Phonological Process Analysis: KAPA)로 정밀전사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게 됨 - 발달적인 & 비발달적인 음운변동으로 나누어 확인-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집단의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실시하였음(양적 연구)	1) 발달적인 음운변동의 경우, 종성 생략 변동에서 언어 환경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2) 비발달적인 음운변동의 경우, 언어 환경과 연령 간 분산 분석 결과 이원 음화, 모음편차, 첨가, 치조음생략에서 언어 환경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3) 언어 환경 간과 연령 간의 상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4) 탈기식음화에서 언어 환경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언어 환경 간과 연령 간은 유의하지 않았음.	다문화가정 유아(4, 5, 6세), 집단과 일반 유아 집단 간 언어 특성(음운변동) 비교·과약 연구 / 이중언어 환경, 비발달적인 음운변동, 발달적인 음운변동

번호	분석 내용 저자 (년도)	연구 대상/인원수 (연령 및 지역)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방법유형)	연구 결과	연구 특성 및 연구 주제/핵심어
2	박지윤· 석동일 (2007)	3, 4, 5, 6세 이중언어 환경 아동(각 3, 7, 9, 7명 & 母의 국적은 필리핀, 일본, 네팔이 면서 한국 이주 3년 이상) 집단-26명 & 단일언어 아동 집단 (각 3, 7, 8, 6명) - 24명 /총 50명(대구, 광주, 부산 지역 거주 & 비교집단아동은 대구 거주)	언어연령과 평균형태소 길이로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밝히고 자, 단일언어 환경 아동 집단과 이중언어 환경 아동 집단에게 수용 및 표현 언어 검사와 자발화 분석-최종 50개 자발화 선정-을 실시 후 두 집단 간 언어연령과 평균형태소 길이를 비교함(양적 연구)	1) 수용언어연령의 경우, 두 집단에 있어서 언어환경 간 5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표현언어연령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음. &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연령 간 언어 연령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일원분산분석 결과) 2) 두 집단의 언어환경 간 연령별 평균형태소길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연령 간 평균 형태소길이에서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 3, 5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일원분산분석 결과) =>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이 증가하나 단일언어 환경 아동들보다 지체됨을 보여주었음: 3-5 대상 조기 중재 필요	다문화가정 유아(3, 4, 5, 6세) 집단과 일반 유아 집단 간 언어발달(언어연령, MLU) 특성 비교· 파악 연구 / 다문화가정, 격조사 산출, 보조사 산출, 문법형태소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국내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확인된 총 46편의 논문에 대해 연도별·학술지별 분포, 연구 대상별(연령별, 유형별),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등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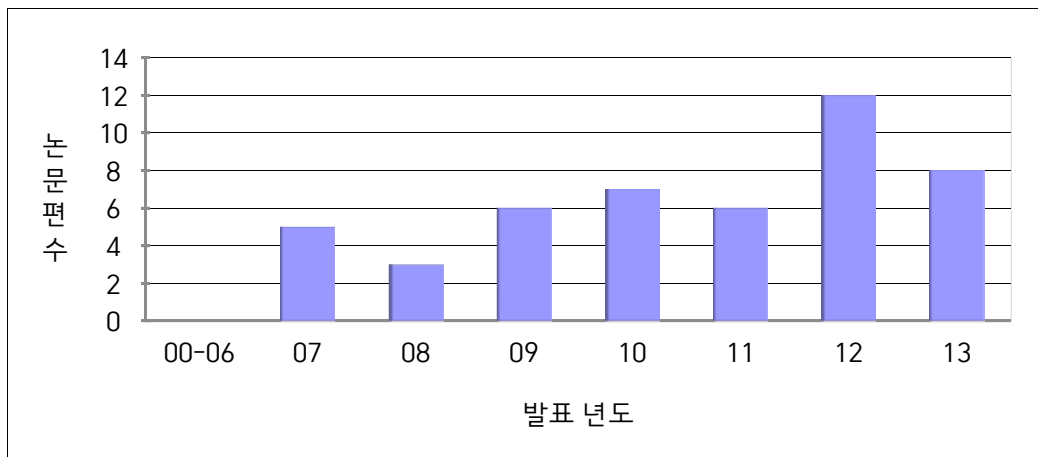
1. 연도별·학술지별 동향

2000년도 1월에서 2013년도 12월 사이에 국내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총 7개에서 연구자의 연구 의도와 목적이 집약되거나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연구 대상 논문은 전체 수록 논문 총 4,970편 중 46편이었다. 즉 연구 목적에 부합하면서 ‘다문화’ 관련 핵심 및 연관 주제어를 통해 선정한 연구 대상 논문의 학술지별, 연도별 발행분포는 다음의 <표 3> 및 <그림 1>과 같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관련 논문이 한 편도 확인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논문이 확인되기 시작하여 3개의 학술지를 통해 총 5편(11%)이 발표되었고, 2008년도에 3편(7%)으로 다소 주춤하였다. 이후 2009년도에는 6편(13%)로 다시 상승되어 2010년 7편(15%), 2011년 6편(13%)으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도에는 11편(24%)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승세는 2013년 8편(17%)의 발표 논문으로 확인되어 어느 정도 유지하는 양상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발표 빈도를 나타내었던 최근의 2012년도부터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특수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 7개 중 약 71%에 해당하는 5개의 학술지에서 다문화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많은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를 통해 고르게 게재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표 3> 국내 분석대상 논문의 학술지·연도별(2000~2013년) 분포

학술지명	발표년도	발표년도													계(%)	전체논문 편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1	특수교육학연구	-	-	-	-	-	-	-	1	-	-	1	-	-	2	4(9)	732
02	특수교육연구	-	-	-	-	-	-	-	-	-	-	-	1	1	1	3(7)	324
03	특수교육저널	-	-	-	-	-	-	3	1	4	2	2	-	1	13(28)	948	
04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	-	-	-	-	-	-	-	-	3	1	2	6(13)	785	
05	특수교육	-	-	-	-	-	-	-	-	1	1	-	4	-	6(13)	1230	
06	특수아동교육	-	-	-	-	-	-	1	-	-	3	-	2	2	8(17)	671	
07	유아특수교육연구	-	-	-	-	-	-	-	2	1	-	-	3	-	6(13)	280	
누계(%)		-	-	-	-	-	-	5	3	6	7	6	11	8	46	4970	
								(11)	(7)	(13)	(15)	(13)	(24)	(17)	(100)		



<그림 1>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2000~2013년) 분포

또 학술지별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에 발표된 논문이 13편(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수아동교육’이 8편(17%)이었고 그 뒤로는 ‘유아특수교육연구’ 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에서 각 6편(13%)씩 동일하게 발표되었다. 이어서 ‘특수교육학연구’ 4편(9%), ‘특수교육연구’ 3편(7%)의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2.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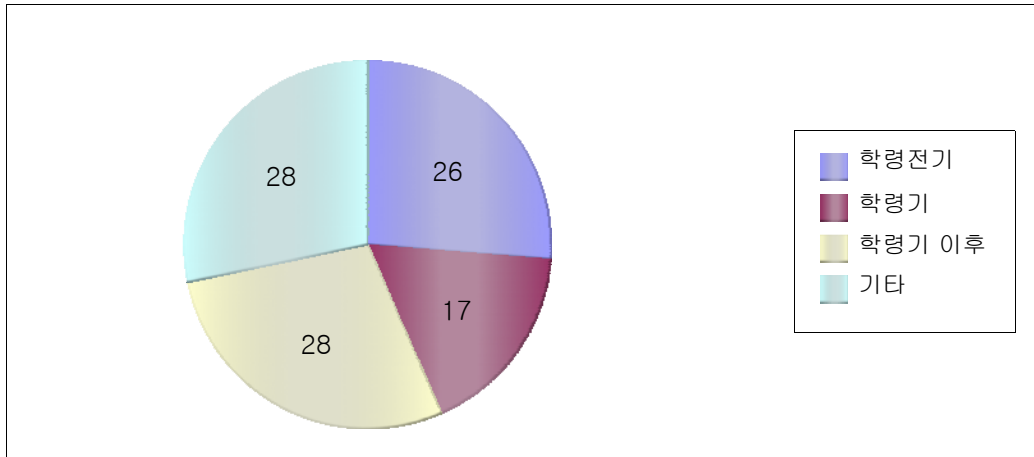
1) 연령별(생애주기) 분석 결과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들에 나타난 연구 대상에 대한 연령별 또는 생애주기별-교육적 관점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학령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그리고 성인(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과 아동(예, 다문화가정 영유아 또는 아동 자녀) 모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등과 같은 병합의 형태이거나 문헌 연구 등과 같은 기타 연구가 각각 13편(28%)을 차지하여 가장 우위에 있었다. 그 다음은 학령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26%)으로 나타났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8편(17%)이었다.

<표 4> 연구 대상의 연령별(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대상의 연령별 시기	발표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	합계 (총 비율 :%)
학령전기 (영유아)	다문화	-	-	-	-	-	-	-	-	-	1	2	1	-	1	5(41.7)	12(26)
	일반	-	-	-	-	-	-	-	-	-	-	1	-	-	-	1(8.3)	
	통합	-	-	-	-	-	-	-	4	1	-	-	-	-	1	6(50)	
학령기 (아동)	다문화	-	-	-	-	-	-	-	-	-	-	-	1	-	1	2(25)	8(17)
	일반	-	-	-	-	-	-	-	-	-	1	-	-	-	-	1(12.5)	
	통합	-	-	-	-	-	-	-	1	-	1	-	-	3	-	5(62.5)	
학령기 이후 (성인)	다문화	-	-	-	-	-	-	-	-	-	-	1	-	1	-	2(15.4)	13(28)
	일반	-	-	-	-	-	-	-	-	1	-	-	2	3	3	9(69.2)	
	통합	-	-	-	-	-	-	-	-	-	-	-	1	1	-	2(15.4)	
기타: 연령병합, 해당없음 (문헌연구 등)	연령병합	-	-	-	-	-	-	-	-	-	3	1	1	1	1	7(53.8)	13(28)
	해당없음	-	-	-	-	-	-	-	-	1	-	2	-	2	1	6(46.2)	

통합: 다문화가정의 아동(영유아)과 일반가정의 아동(영유아)를 함께 대상으로 한 경우임.



<그림 2> 연구 대상의 연령별(생애주기별) 분포 (단위 : %)

이러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분포를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총 12편 중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를 함께 대상으로 한 통합의 경우가 가장 많은 6편(50%)이었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41.7%), 일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8.3%)이었다. 학령기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총 8편 중에서는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통합 대상의 연구가 5편(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25%),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12.5%)이었다. 학령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총 13편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9편(69.2%)이었고, 다문화가정 성인(외국인 이주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와 그리고 일반 성인과 다문화가정 성인을 함께 대상-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전문가 대상-으로 수행한 통합 대상 연구 논문이 각각 2편씩(각 15.4%)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연구 부분에서는 총 13편의 논문 중에서 연령병합의 경우, 유아나 아동 연령 대상을 병합하거나 유아나 성인(어머니, 교사)을 병합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7편(53.8%)이었다. 또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 연구 등의 기타 연구가 6편(46.2%)으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여주듯이 전체적으로 학령전기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각 4편과 1편씩으로 200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비교적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령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사한 시기인 2008년도에 시작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고, 특히 일반 성인 대상 연구의 비중이 크고 다문화가정 성인을 단독으로 경우는 연구의 편수가 적고-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에 해당되는 논문 2편임- 간헐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연령 유형이 둘 이상인 기타 연구의 병합(혼합) 형태는 2009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 1편 이상 연속성을 보였으며, 문헌 중심 등의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연구 또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2편씩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었다.

2) 유형별 분석 결과

분석 대상 논문들에 나타난 연구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총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그 중 유아·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과 단일 집단 유형이 각각 12편(약 26%)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관련 유형 또한 총 10편(약 22%)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나머지 세 가지 유형 중 문헌분석 등의 기타 연구 유형이 총 6편(약 13%), 다문화가정 유아 집단과 그 어머니 집단을 함께 대상으로 하였던 유아와 성인 집단 대상 유형이 총 5편(약 11%)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상위의 두 유형보다 절반 정도로 낮아진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다문화(이중언어) 가정의 외국인 성인 집단과 단일 언어 사용 집단을 비교집단으로서 함께 대상화하여 연구한 성인 집단 간 비교 유형은 총 1편(2%)으로서 가장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확인되고 있는 상위 세 가지 연구 대상 유형의 세부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표 5>에서 보이듯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유아·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에는 하위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유아들이나 아동들과 일반가정의 유아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 비교한 연구로서 각각 5편씩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꾸준히 발표되었다. 나머지 세부 하위 유형은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아동들 한 집단으로 삼고 일반가정 유아와 아동들 하나의 비교 집단화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연구가 1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삼아 비교 연구한 논문 또한 1편으로서 2011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발표되었다. 또 동일한 출현 빈도를 보였던 단일 집단 유형에서도 네 가지 세부 하위 유형이 확인되었는데 다문화가정 유아 단일집단이 6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이루어진 단일집단 연구가 3편, 또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 단일집단 2편과 다문화 관련 전문가(통합교육 환경의 특수교사) 성인 단일집단이 1편의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총 10편의 논문으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 하였던 전문가 집단 관련 유형에서는 세 개의 세부 하위 유형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교사 관련 전문가 집단 연구는 8편으로서 3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단일대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던 신수진 외(2011)의 연구와 예비교사를 집단으로 설문조사 하였던 이정은(2012)의 연구 등을 포함하였다. 그 외 네 기관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가정 발달지체 유아를 둔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와 전문가(교사) 집단과 다문화가정 유아 집단을 함께 연구한 형태(박민정, 이병인, 2010)가 각 1편씩 보였다.

<표 5> 연구 대상의 유형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 유형 및 해당 논문	1) 유아·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 총 12편(약 26%) ① 다문화가정 유아 집단+일반가정 유아 통합 집단: 5편 ②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일반가정 아동 통합 집단: 5편 ③ 다문화가정 유아 및 아동 연령 병합집단+일반가정 유아 및 아동 혼합(병합) 집단: 1편 ④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통합 집단 간 비교: 1편	구효진 외(2007), 권미지 외(2007), 박지윤, 석동일(2007), 황상심, 김화수(2008), 우윤정 외(2012) 최은정 외(2007), 김화수 외(2009), 오소정(2012), 최송아, 홍경훈(2012), 박원경 외(2007) 김은정, 김화수(2011) 정금자, 이영숙(2013)
	2) 성인 집단 간 비교 유형: 총 1편(약 2%): 다문화가정/이중언어 성인 집단+단일언어사용 성인 집단	김성수 외(2011)
	3) 유아 집단과 성인 집단 대상 병합 유형: 총 5편(약 11%): 다문화가정 유아 집단+가족(어머니) 집단	봉귀영, 이소현(2013), 최현옥, 황보명(2009), 오소정 외(2009), 구효진(2009), 김정미(2012)
	4) 전문가 집단 관련 유형: 총 10편(약 22%) ① 전문가(예비교사 및 교사) 집단: 8편 # 단일 대상 연구 및 비교 연구 포함 ② 전문가 집단+가족(어머니) 집단: 1편 ③ 전문가(교사) 집단+다문화 가정 유아: 1편	최성규 외(2011), 이정은(2012)a, 신수진 외(2011), 박채진 외(2013), 이정은(2012)b, 권미은 외(2012), 박찬영, 최성규(2013)b, 김경숙 외(2008) 김명화 외(2012) 박민정, 이병인(2010)
	5) 단일 집단 유형: 총 12편(약 26%) ① 다문화가정 유아 단일집단(비교연구 포함): 6편 ② 다문화가정 아동 단일집단(비교연구 포함): 3편 ③ 다문화가정 성인(결혼이주여성) 단일집단: 2편 ④ 다문화 관련 전문가 성인 단일집단: 1편	황상심(2009), 김화수, 이은경(2010), 이은경, 김화수(2011)b, 선애순, 권순향(2010), 정영주 외(2010), 송복선 외(2013) 주재현, 신현기(2013), 선영애, 박남수(2009), 이은경, 김화수(2011)a 이상희 외(2010), 김가홍(2012) 박찬영, 최성규(2013)a
	6) 기타-문헌분석 등: 총 6편(약 13%)	강창욱(2010), 김동일 외(2013), 이은주, 김영태(2010), 정은희 외(2012), 원종례(2008), 엄수정, 원종례(2012)

3) 장애 관련 연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과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었으나, 아울러 특수교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장애 관련 연구 유형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내용 분류 유형	분석 내용 및 해당 논문	
장애 관련 연구 유형	가)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 대상 연구: 총 3편(약 13%) ① 다문화가정 조음음운장애 유아(5;0-5;3) 집단(10명) & 2개의 비교 집단(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유아집단과 정상 유아집단, 각 10명씩)과의 언어특성(음운변동패턴) 비교 연구: 1편 ②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DLD) 영유아(만 5세) 실험/통제 2집단(각 4명씩, 총 8명) 간, 중재(그림 동화책 읽어주기) 적용 실험-비교 연구: 1편 ③ 다문화가정 장애 유아(자폐범주성장애: ASD) 3명(2;11, 3;3, 4;5) & 어머니 대상, 중재(부모교육프로그램) 적용 실험-단일대상 연구: 1편	황상심, 김화수 (2008) 선애순, 권순항 (2010) 봉귀영, 이소현 (2013)
	나)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관련인 대상 연구: 총 3편(약 13%) ① 교사(전문가) 3명 대상-다문화가정 장애(MR, 자폐) 아동교육 경험 관련 질적 연구: 1편 ② 다문화가정의 이주 또는 귀화 여성 어머니 대상-장애 자녀(MR-8명, 뇌병변 장애-2명) 양육 경험에 관한 면담 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반구조화된 면담 조사): 1편 ③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DLD) 장애유아 자녀의 결혼 이주 여성인 어머니 집단(5명) & 지원전문가(5명; 유치원/교육청/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언어클리닉 등과 같은 관련 기관 2년 종사자) 대상 연구- 경험 관련 개별 면담에 의한 질적 연구: 1편	신수진, 한성희, 이규옥 (2011) 김기홍 (2012) 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

<표 6>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 관련 연구 논문은 연구 대상 논문 46편 중 총 6편(약 26%)에 해당되어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를 직접적으로 대상하는 논문은 3편(약 13%)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에는 다문화가정 조음음운장애 유아 집단과 두 개의 비교집단(장애 및 비장애 일반 유아 집단) 간에 음운변동패턴이라는 언어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 1편(황상심, 김화수, 2008)과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만 5세) 집단을 실험,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그림

동화책 읽어주기' 중재의 효과를 실험, 비교한 연구 1편(선예순, 권순향, 2010),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폐범주성장애(ASD) 3명과 그 어머니를 함께 대상으로 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포함)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단일대상연구 1편(봉귀영, 이소현, 2013)이 해당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애(예, 정신지체, 자폐, 뇌병변장애, 발달지체)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즉, 교사(3명), 어머니(10명), 그리고 혼합 형태(어머니와 지원 전문가 각 5명)대상의 연구가 면담 중심 질적 연구 방법 중심으로 각 1편씩, 총 3편(신수진, 한성희, 이규옥, 2011; 김기홍, 2012; 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 내용

아래의 <표 7>과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방법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양적연구 35편(76%), 질적연구 10편(22%), 그 외 기타 연구 방법이 1편(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대한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의 방법은 분석대상기간 중 '다문화' 관련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이후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5편 이상 비교적 꾸준히 나타나면서 최근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4편이 발표되었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2편 이하의 적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기타 유형은 2012년 한 편에 그치고 있었다.

<표 7> 연구 방법에 따른 연도별 분포

발표년도 연구 방법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양적 연구	-	-	-	-	-	-	-	5	1	6	5	5	6	7	35(76)
질적 연구	-	-	-	-	-	-	-	-	2	-	2	1	4	1	10(22)
기타 연구	-	-	-	-	-	-	-	-	-	-	-	-	1	-	1(2)
계(%)	-	-	-	-	-	-	-	5	3	6	7	5	11	8	4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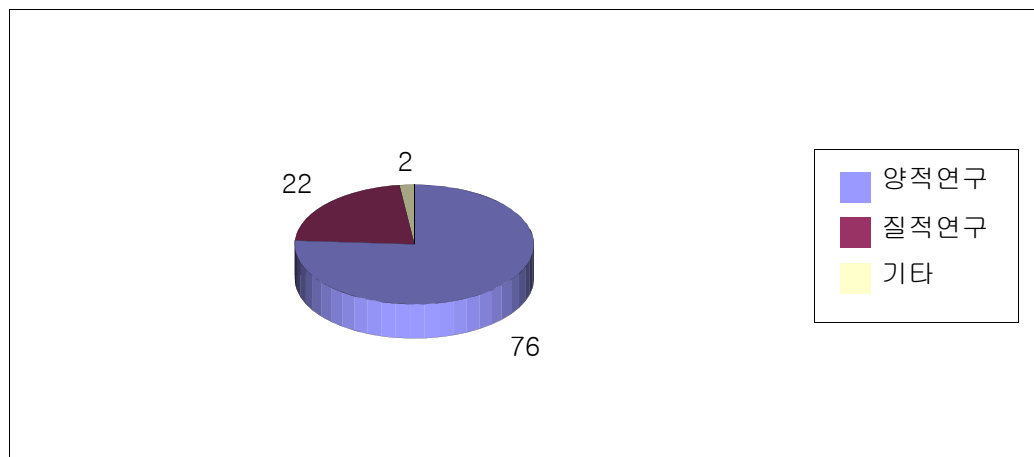
또 상기의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연구 방법에 대한 세부유형별 분석 결과, 양적연구의 경우 비교연구 14편(40%), 조사연구 10편(28.57%), 또 상관연구와 실험 연구가 각각 4편(11.42%)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단일대상연구 2편(5.71%), 메타분석 연구 1편(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질적연구 방법의 경우에는 면담에 의한 연구가 4편(40%)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분석과 문헌고찰 연구가 3편, 동향분석 연구와

근거이론 연구, 내용분석 연구의 세 가지 하위 세부영역 모두 각각 1편씩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연구 방법 유형으로 검사도구개발 연구 1편이 확인되었다(# 뒤의 <표 11> 선정 논문별 분석 내용 참조).

<표 8> 국내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방법(세부유형)별 분석 결과

연구 방법 세부연구유형 분야별학술지	양적연구						질적연구					기타 연구	합계
	조사	상관	비교	실험	단일 대상	메타 분석	문헌 분석 & 고찰	동향 분석	면담 연구/현 상학	근거 이론	내용 분석	검사 도구 개발	
특수교육학연구	-	-	1	1	1	-	-	-	-	1	-	-	4
특수교육연구	2	-	-	-	1	-	-	-	-	-	-	-	3
특수교육저널	2	1	7	1	-	-	-	-	1	-	1	-	13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	-	3	-	-	-	1	-	-	-	-	-	6
특수교육	2	1	2	-	-	1	-	-	-	-	-	-	6
특수아동교육	2	1	1	2	-	-	1	-	1	-	-	-	8
유아특수교육연구	-	1	-	-	-	-	1	1	2	-	-	1	6
누계(%)	10 {28.57}	4 {11.42}	14 {40.0}	4 {11.42}	2 {5.71}	1 {2.86}	3 {30}	1 {10}	4 {40}	1 {10}	1 {10}	1 {100}	46 (100)
합계(%)	35(76)						10(22)					1(2)	

* { }안의 비율은 각 연구 방법 유형 대비 세부연구유형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함.



<그림 3> 연구 방법별 분포 (단위 : %)

4. 연구 주제 및 내용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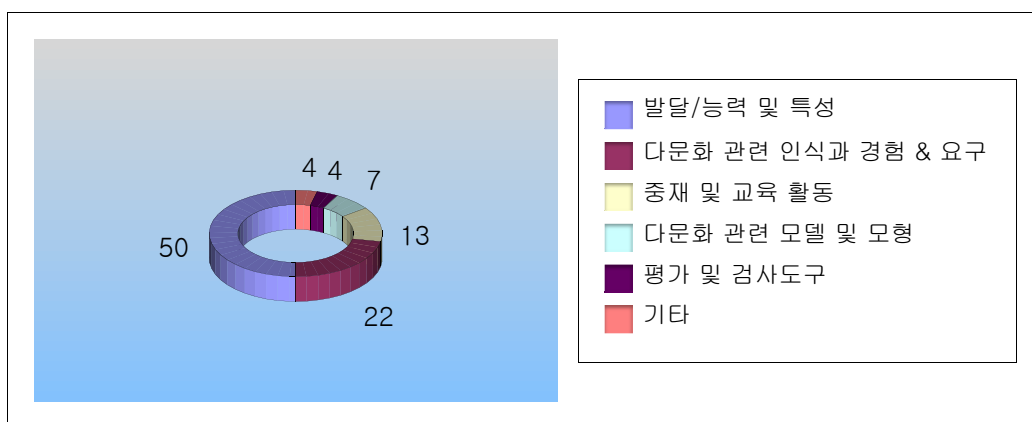
1) 연구 주제의 분석 및 연도별 동향

연구 주제에 따른 연도별 분석 결과는 <표 9>과 <그림 4>에서와 같은데(46편의 선정 논문별, 연구 주제 및 내용 특성은 <표 11> 참조하기 바람), 즉 총 46편의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크게 6개의 연구 주제 범주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발달(능력)이나 특성 관련 연구가 총 23편(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문화 관련 인식이나 경험 그리고 요구와 관련된 연구가 10편(22%), 중재 및 교육 활동 관련 연구가 6편(13%), 다문화 관련 모델 및 모형(구성) 관련 연구가 3편(7%), 평가 및 검사 도구 관련 연구와 기타 문헌분석 연구(예, 문헌 고찰이나 연구동향 분석)가 각각 2편(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 6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의 ‘발달(능력) 및 특성’ 관련 주제 영역은 2007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으로서 2010년을 기준으로 약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다문화에 관련한 인식(경험)과 요구’에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근래인 2011년부터 2편 이상 연구되어지고 있었고, 실험연구 방법의 유형으로 적용되는 ‘중재 및 교육 활동’에 관련한 주제는 2009년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나 3편 이하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밖에 ‘다문화 관련 모델이나 모형’과 ‘평가 및 검사도구’ 관련 주제와 ‘기타(문헌고찰, 동향 분석)’ 주제는 2008년, 2010년, 또 최근 2012년에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 편 이하의 연구만이 매우 간헐적이면서 매우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구 주제(하위주제별)에 따른 연도별 분포

발표년도 연구 주제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발달/능력 또는 특성	-	-	-	-	-	-	-	5	2	5	3	4	3	1	23(50)
다문화 관련 인식 및 경험 & 요구	-	-	-	-	-	-	-	-	-	-	-	2	5	3	10(22)
중재 및 교육 활동	-	-	-	-	-	-	-	-	-	1	2	-	-	3	6(13)
다문화 관련 모델 및 모형(구성)	-	-	-	-	-	-	-	-	1	-	1	-	-	1	3(7)
평가 및 검사도구	-	-	-	-	-	-	-	-	-	-	1	-	1	-	2(4)
기타	-	-	-	-	-	-	-	-	-	-	-	-	2	-	2(4)
누계(%)	-	-	-	-	-	-	-	5	3	6	7	6	11	8	46(100)



<그림 4> 연구 주제별 분포 (단위 : %)

2) 연구 주제 및 내용 특성(범주)에 따른 학술지별 동향

<표 10>에서 나타나 있듯이 연구 주제에 따른 학술지별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기술하였듯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발달(능력) 및 특성” 연구 주제는 선정된 7개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중 ‘특수교육연구’를 제외한 6개의 학술지에서 고르게 발표되어 있었다(총 23편). 특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학술지에서는 9편(권미지, 박상희, 석동일, 2009; 박지윤, 석동일, 2007; 최은정 외, 2007; 황상심, 김화수, 2008; 황상심, 2009; 최현옥, 황보명, 2009; 김화수, 김지채, 권수진, 2009; 김화수, 이은경; 2010; 김성수, 이상경, 안효자, 2011)이 발표되어 가장 연구가 많았고, 그 뒤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에서 4편(김은정, 김화수, 2011; 이은경, 김화수, 2011; 이은경, 김화수, 2011; 우윤정 외, 2012)이 발표되었고, 나머지 네 곳의 학회지에서 2, 3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2007; 박민정, 이병인, 2010;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오소정, 2012; 최송아, 홍경훈, 2012; 박원경 외, 2007; 이상희 외, 2010; 송복선, 이지윤, 최양규, 2013; 김경숙, 안은영, 이영숙, 2008; 구효진, 2009). “다문화에 관련한 인식 및 경험, 또 요구”에 관한 연구 주제 연구 총 10편(최성규, 정승희, 박원경, 2011; 이정은 a & b, 2012; 신수진, 한성희, 이규욱, 2011; 박찬영, 최성규, 2013; 박채진 외, 2013;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김기홍, 2012; 박찬영, 최성규, 2013; 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 또한 ‘특수교육학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학술지에서 고르게 발표되었는데 하지만 ‘발달 및 특성’ 연구 주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편수는 모두 2편 이하의 적은 수에 그치고 있었다. “중재 및 교육 활동” 관련 주제는 ‘특수교육학연구’,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아동교육’ 4곳의 학술지에서 다루어졌

는데 역시 1, 2편의 적은 연구가 수행된 것에 그쳤고, 6편(봉귀영, 이소현, 2013; 정금자, 이영숙, 2013; 주재현, 신현기, 2013; 선영애, 박남수, 2009; 선애순, 권순항, 2010; 정영주, 노진아, 정길순, 2010) 중 4편(약 67%)의 연구가 2013년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문화 관련 개념모델 및 지원 모형 또는 구성”의 연구 주제를 다루었던 학회지는 2008년 ‘유아특수교육학회’ 1편(원종례, 2008), 2010년 ‘특수교육저널’ 1편(강창욱, 2010), 2013년 ‘특수교육재화과학연구’ 1편(김동일 외, 2013)이었다. 또한 “평가 및 검사” 관련 연구 주제는 2010년의 ‘특수교육’ 과 2012년 ‘유아특수교육’ 학회지에서 각 1편씩(이은주, 김영태, 2010; 김정미, 2012)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논문들을 분석, 고찰한 연구 1편(정은희, 김태강, 박윤, 2012)과 다문화에 대한 교사교육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 고찰한 연구 1편(엄수정, 원종례, 2012)이 2012년 같은 해에 ‘특수아동교육’ 과 ‘유아특수교육’ 학술지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연구가 수행된 내용 또는 특성에 따라 Tulbert 등(1996)과 김애화 외(2011)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다시 5개의 범주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즉, 연구 대상이나 특정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특성 연구’는 “발달 및 특성” 관련 주제어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고, 설문지나 질문지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와 질적인 접근 방법(예, 면접, 내러티브 분석 등)에 의해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조사 및 질적 연구’는 “다문화 관련 인식/경험 및 요구” 주제어와 관련되었다. 또 중재(독립변인)의 적용 효과나 영향을 종속변인을 통해 살피기 위해 실험/비교, 단일대상 연구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중재연구’는 “중재 및 교육 활동” 주제어와 연관되었고, 평가도구나 척도의 개발 등 평가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평가 관련 연구’ 논문은 역시 “평가 및 검사도구” 주제어와 연관 지을 수 있었다. 나머지 다문화 관련 모델 및 모형 또는 구성 관련 연구 논문과 다문화 관련 연구 문헌 고찰 및 동향 분석 연구는 ‘기타 연구’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본 고(稿)에서는 연구의 초록(연구의 요약) 부분을 통해, 각 연구마다의 연구의도와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핵심 주제어(key words)’를 더불어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연구 분석 대상 논문들(46편)에서는 200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약 13년 동안 총 78개의 핵심 주제어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7개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를 통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핵심 주제어는 20편(약 26%)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국제 결혼(또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이었고, 그 다음은 11편(약 14%)의 논문에서 제시된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학생)’와 10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다문화 경험·인식’이었다. 또 9편(약 12%)의 논문에서 나타난 핵심주제어는 ‘이중언어(환경)과 다문화교육(활동)’ 이었고, 7편(약 9%)의 논문에서는 ‘특수(학급)교사’ 관련 주제어가 나타났다. 이어서 ‘음운변동’,

‘언어평가나 진단 및 평가’, ‘발달 위험(군) 유아나 아동’ 관련 핵심주제어는 각 6편씩(약 8%)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농문화(농사회)’와 ‘대·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각 5편씩(약 6%), ‘언어지도나 치료’, ‘비유적 언어나 관용어 이해’, ‘언어발달지체나 단순언어장애’가 각 4편씩(약 5%), 또 ‘연음(인식)이나 연음규칙’, ‘청각장애교육’, ‘통합교육’, ‘취학전아동’이 각 3편씩(약 4%)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총 18개의 핵심주제어를 제외한 나머지 60개의 주제어는 2편 이하의 적은 빈도의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표 10> 연구 주제(하위주제별) 및 범주 유형에 따른 학술지별 분포

주제 및 범주	학술지명	특수교육학 연구	특수교육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	특수 교육	특수아동 교육	유아특수 교육	합계 (%)
발달/능력 및 특성	특성 연구	2 {07' -1, 10' -1}	-	9 {07' -3, 08' -1, 09' -3, 10' -1, 11' -1}	4 {11' -3, 12' -1}	3 {09' -1, 12' -2}	3 {07' -1, 10' -1, 13' -1}	2 {08' -1, 09' -1}	23 (50)
	다문화 관련 인식 과 경험 & 요구	-	2 {11' -1, 12' -1}	2 {11' -1, 13' -1}	1 {13' -1}	2 {12' -2}	2 {12' -1, 13' -1}	1 {12' -1}	10 (22)
중재 및 교육 활동	중재 연구	2 {13' -2}	1 {13' -1}	1 {13' -1}	-	-	2 {10' -2}	-	6 (13)
평가 및 검사도구	평가 관련 연구	-	-	-	-	1 {10' -1}	-	1 {12' -1}	2 (4)
다문화 관련 모델 및 모형	기타 연구	-	-	1 {10' -1}	1 {13' -1}	-	-	1 {08' -1}	3 (7)
	기타: 연구 문헌 고찰 및 동향 분석	-	-	-	-	-	1 {12' -1}	1 {12' -1}	2 (4)

{ }은 해당 주제의 논문이 발표된 연도와 발표 횟수를 표기하였음; 예, 07' -1은 2007년도 1회 발표

<표 11> 선정 논문별, 연구 주제 및 특성 & 핵심어 분석 자료

내용	분석 내용	
	연구 주제 및 특성	연구 핵심어(주제어)
내용	1) 발달/ 특성 파악: 언어 & 정서-사회성	1)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 20편(약 26%)
	2) 교육기관 적응 & 상호작용 행동 특성 파악 (근거이론에 의한 질적연구 접근)	2)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학생: 11편(약 14%)
	3) 중재 효과 연구: 부모 중재-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포함, 다문화가정 장애 유아(ASD) 3인 대상-단일대상, 중속변인-사회적 상호작용	3) 언어 또는 인지 발달/(구사)능력(실태)/(언어) 특성: 11편(약 14%)
		4) 다문화(경험/인식/효능감): 10편(약 13%)
		5) 이중언어 (환경): 9편(약 12%)

<표 11> 선정 논문별, 연구 주제 및 특성 & 핵심어 분석 자료 (계속)

분석 내용	
연구 주제 및 특성	연구 핵심어(주제어)
4) 중재 효과 실험 연구: 혼합 유아 집단 중재, 비교, 종속변인-사회적 상호작용 5) 인식 조사: 농/다문화 사회, 초등 일반교사 대상 6) 인식 조사: 다문화 교육 관련(역할 등), 예비 특수교사 대상 7) 중재 효과 연구:母 모국 기반 문해 교수, 단일 대상, 종속변인-읽기능력 8) 특성/발달 파악: 언어-음운변동 9) 발달/특성 파악: 언어연령, MLU 10) 특성/발달 파악: 언어-연음규칙 인식력 11) 특성/발달 파악: 언어-음운변동패턴 12) 특성/발달 파악: 언어-통합언어연령, 수용 및 표현 언어연령 13) 중재 효과 실험: 다문화교육 활동, 일반 아동 집단 대상, 종속변인-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14) 특성/발달 파악: 언어(한국어) 능력, 다문화 유아와 어머니 능력 간 상관관계 15) 특성/발달 파악: 언어(표현)-생성어휘대기(비교) 16) 특성/발달 파악: 언어-수용 & 표현 언어능력(연령별 비교 파악) 17) 다문화적 관점 교육과정 구성 제안-청각장애 특수학교 사회과 18) 특성/발달 파악: 언어-어휘 & 구문 능력(비교), 다문화가정 어머니 집단 대상 19) 다문화가정 장애(MR, 자폐) 아동-3인 교육 경험(인식)의 의미 분석 20) 인식 조사/비교: 농/다문화, 청각장애 재학 통합 교육 환경의 특수학급 특수교사 대상 21) 특성/발달 파악: 언어-문법성 파악 및 오류 수정 능력(비교) 22) 특성/발달 파악: 언어-수용어휘력 & 구문이해 능력(지역별 비교) 23) 특성/발달 파악: 언어-수용 & 표현 언어능력(연령별/성별 비교) 24)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지원서비스 관련 개념 모델 제안-문헌 고찰 25) 특성/발달 파악: 언어-비유적 언어 및 속담이해 능력(북한이탈 학생-아동집단과의 비교) 26) 요구(도) 조사: 의사소통 지원 관련, 다문화 가정 아동 경험 보유 일반 교사 대상 27) 특성/발달 파악: 언어발달(이해 및 표현) 조사 & 어머니 변인과의 상관관계	6) 다문화교육(활동; 사회극놀이/동극 -반편견/장애 이슈의): 9편(약 12%) 7) (특수교육)예비교사/특수(학급) 교사: 7편(약 9%) 8) 음운변동, 발달적인/비발달적인 음운변동: 6편(약 8%) 9) 언어평가/검사(표준화 등)/집단·평가: 6편(약 8%) 10) (장애 또는 발달)위험(군) 유아/아동: 6편(약 8%) 11) 농문화/농사회: 5편(약 7%) 12) (대·소도시/농촌) 지역: 5편(약 7%) 13) 언어지도/치료: 4편(약 5%) 14) 비유(적) 언어/관용어(이해): 4편(약 5%) 15) 언어(발달)지체(유아)/단순언어장애: 4편(약 5%) 16) 연음/연음규칙(연음인식): 3편(약 4%) 17) 청각장애 교육: 3편(약 4%) 18) 통합교육: 3편(약 4%) 19) 질적연구 20) 근거이론 21) 가족지원 22) 자폐범주성 장애 23) 반응성/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24) 사회적 상호작용 25) 부모교육 26) 사회적 적응능력 27) 사회적 순응능력 28) 질문지순서효과 29) 프라임 효과 30) (유아)특수교육 31) 문화반응교수 32) 성과기대/교사역량 33) 자기(교사)효능감 34) 모국문화 35) 문해교수 36) 읽기능력 37) 사회성·정서 발달 38) 격조사 산출 39) 보조사 산출 40) 문법형태소 41) 기능적 조음장애 42) 연령집단 43)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44) 장애아 수용태도 45)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46)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 47) 언어발달지도사

내용

<표 11> 선정 논문별, 연구 주제 및 특성 & 핵심어 분석 자료 (계속)

분석 내용	
연구 주제 및 특성	연구 핵심어(주제어)
28)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 평가 관련 논문들의 메타분석-비언어평가과제	48) 취학전 아동(유아, 영유아)
29) 인식 조사/비교: 다문화 교육 관련(경험, 효능감), 특수교사 & 일반교사 대상	49) (다문화적 반편견) 교육과정
30) 특성/발달 파악: 언어-속담이해능력(비교)	50) 사회과
31) 인식 조사: 연구 대상(집단) 배경 변인별 (다문화 경험 등 설문 조사)	51)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CLD) 인구
32) 특성/발달 파악: 언어-관용어 이해(비교)	52)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이주자)
33) 특성/발달 파악: 학령기 3그룹 간 언어능력 & 인지면: 지식기반능력 & 처리기반 능력(비교)	53) 자발화표본분석
34) 중재 효과 실험(비교):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단일 집단(DLD) 중재-그림동화책 읽어주기, 종속변인-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	54) 다문화장애아동
35) 중재 효과 실험(비교): 동극 통한 다문화적 반편견 교육활동, 종속변인-편견 &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	55) 현상학적 연구
36) 특성/발달 파악: 언어-언어구사력(표현), 다문화 가정 어머니 대상-설문조사	56) 교사인식
37) 인식 & 요구(도) 조사: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아동) 의 양육과 교육 관련, 어머니 단일집단 대상	57) 문법성 판단/오류수정
38) 국내 학술지 대상(2000-2011),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 관련 연구 논문 분석/고찰-문헌 연구	58) 학령기
39) 인식 조사/비교: 농/다문화, 청각장애 재학 통합교육 환경의 원적학급 일반교사 대상	59) 다양성
40) 특성/발달 파악: 다문화가정 유아 단일 집단대상 언어-조음음운능력, 어머니 출신 국가별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그룹의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60) 중재반응모형
41) 특성/발달(전반) & 교수활동 파악: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일반교사 6인 대상-심층면담 조사	61) (초등학교)일반교사
42)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장애 이슈 포함) 관련-교사교육 & 교육과정- 개념 모형/모델 제안-문헌 고찰	62) 북한이탈아동
43) 특성/발달 파악 & 상관관계 분석: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제행동 & 관련변인 간 (3가지 측면-언어/인지/사회·정서) 관계, 어머니 평정 검사 통합	63) 속담(이해능력)
44) 인식 & 요구(도) 조사: 다문화가정 장애자녀(DLD 유아) 어머니 5인 집단과 관련 전문가 5인 집단의 경험 심층 면담	64) 의사소통/사회적 지원
45) 국내 학술지 대상(2003-2012.3.), 다문화 교사 교육 관련 연구 논문 분석/고찰-연구동향	65) 콘텐츠
46) 조기 선별 평가도구 개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집단과 그 어머니 대상	66) 요구도
	67) 관련변인
	68) 비언어과제
	69) 메타분석
	70) 친숙도
	71) 지식기반/처리기반
	72) 제주도
	73) 조음능력
	74) 예비교사교육/다문화 교사교육
	75) 공격성
	76) 전이
	77) 문헌연구
	78) 연구동향/연구방향

기타, 분석 결과에 의해 파악된 특성으로는 총 46편의 분석 대상 논문 중 1편(약 1%)의 논문에서만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형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농문화와 다문화를 연계한 연구의 시도가 3편(약 4%)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노력 등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고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찾아 향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가야 할 연구 및 실행의 방향 탐색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이에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전문(등재) 학술지(7종)에서 2000년도에서 2013년까지 13년 간 발표된 총 4,970편의 논문 중 다문화가정, 다문화 교육 등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총 46편 선정하여 분포(연도별, 학술지별), 연구 대상(연령별/생애주기별, 유형별-6개의 하위 유형 및 장애 관련 유형), 연구 방법(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의 주제 및 범주(6개의 하위 주제 및 5개의 연구 범주 유형: 연도별, 학술지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 논문의 발생분포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인 2007년부터 발표되기 시작되어 2013년도에 이르기까지 증가하거나 유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관심 고조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근 의사소통 및 언어, 언어장애와 치료를 주요 연구 초점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청각장애’와 ‘언어치료연구’ 두 학술지를 통해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박혜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포의 양상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연구 논문 선정기간 13년 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 대상 논문이 10편 이상 발표된 해는 최근 2012년도 한 해에 불과하고, 선정된 7종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총 논문 발표편수 4,970편에 비해 연구 대상 논문 46편은 0.9%에 해당되어 국내의 타 전문 영역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와 비교할 때 양적인 분발이 크게 요청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연구의 추이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매년 100여 편 이상의 연구와 관련 저서의 폭발적 증가를 보고하고 있는 국내 일반 교육 분야에서의 다문화 연구 분포와도 양적인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었다(곽윤주; 2010; 이민경, 2013; 장인실, 차경희, 2012).

둘 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생애주기별) 분포와 유형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연구 대상은 학령기 이후 성인 대상(13편, 28%)과 학령전기의 영·유아(12편, 26%), 학령기 아동(8편, 17%)의 순이었으며, ‘성인기’와 ‘학령전기’ 대상은 유사한 수준(각 28%와 26%)으로 높았고, 서로 다른 연령대상이 병합된 통합 유형이나 문헌 분석 등의 ‘기타 유형(13편, 2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10종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애화 외(2011)의 연구 결과에서 보였던 ‘조사 연구 유형’에서만 유사하게 ‘성인 대상’ 연구 비율이 약 26%로 높았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듯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아직까지 국내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가 다문화가정 가족(이주 여성 어머니 등) 또는 관련 전문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 및 면담 등에 의한 경험과 인식 연구에 집중된 결과 등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령 전후의 영유아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총 연구 대상 논문 46편 중 20편(43%)을 차지하여 성인기와 연령별 병합 형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각 13편, 7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선호되고 있는 연구 대상 연령과도 유사한 양상이었다(김애화 외, 2011; 조현근, 이병인, 2009). 또한 연구 대상의 유형별 분석 결과에서는 ‘유아나 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과 ‘유아·아동·성인 각각의 단일 집단 유형’이 동일하게 가장 우위를 나타내었다(각각 26%). 이는 집단 간 비교 유형이 50%를 훨씬 상회하면서 도리어 단일 집단 대상 유형은 10% 미만을 나타내었던 국내의 다문화 관련 최근의 연구물의 결과(박혜성, 2013)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고, 중재 연구 시 단일집단연구 설계 유형(23.2%)을 선호하는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서의 연구 대상 유형에 대한 경향과는 일치하는 것이었다(김애화 외, 2011). 더불어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 논문은 5세 조음음운장애 유아 집단 10명과 언어발달지체 유아 집단 8명, 또 만 2, 3, 4세 자폐범주성장애(ASD) 유아 3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 3편(약 13%)으로 매우 적었으며, 그밖에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지도 하였던 경험을 가지는 관련인(교사, 어머니)을 대상으로 간접적 연구를 한 경우 또한 3편(약 13%)에 그쳐 다문화가정 장애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미약함을 시사하였다.

셋 째,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 연구의 형태가 35편(76%), 질적 연구가 10편(22%), 검사도구 개발과 같은 그 외 기타 연구의 형태가 1편(2%)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 ‘비교’와 ‘조사’의 세부 유형이 주를 이루는 양적 연구 방법이 76%로서 편중된 연구 방법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 대다수의 관련 전문 학술지를 통해 1970

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2007년, 2008, 2009년도)까지의 발표논문들을 분석한 국내 특수교육 분야 연구 전반 및 유아특수교육분야에서의 연구 동향 분석 결과들(김애화 외, 2011; 노진아 외, 2009; 조현근, 이병인; 2009), 그리고 언어장애 및 치료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결과(김정미, 홍경훈, 2008; 진연선, 권유진, 이윤경, 2008)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부 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상위를 차지하였던 교육 '중재' 를 중심으로 시행한 '실험연구' 의 비중이 낮아서 대비를 이루는 결과(약 4% vs. 약 10% 이상)였으며, 질적 연구 위주의 연구 방법 우세를 보고하였던 국내 다문화 관련 일반유아교육학 분야의 연구 결과(곽윤숙, 2010)나 국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과 기법의 적용 양태(Law, Garrett, & Nye, 2004; Sleeter, & Grant, 1987; Bennett, 2001)와도 상이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연구는 양적 연구 접근이 편중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델파이 연구나 역사적/문화기술적 연구의 접근 방법, 또 표준화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의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과 미비한 세부 연구 형태(예, 메타분석, 동향 분석 등)의 확장 등으로 연구 방법 적용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 째, 연구 주제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총 6개의 하위 주제(발달/능력 및 특성, 다문화 관련 인식과 경험 & 요구, 중재 및 교육 활동, 평가 및 검사 도구, 다문화 관련 모델 및 모형 & 구성, 문헌 및 동향 분석과 같은 기타 주제)와 5개의 연구 내용 범주 유형(특성 연구, 조사 연구, 중재 연구, 평가 관련 연구, 기타 연구)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중 언어 사용자의 '발달(능력)이나 특성' 과 '다문화 관련 인식 및 경험, 그리고 요구' 의 하위 주제가 가장 크게 우위를 차지(각각 50%, 22%)하여 현재까지의 특수교육 내 '다문화' 관련 연구들에서 가장 선호되거나 중요시 되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정 논문들에서 제시된 연구 핵심어(key words)는 총 78개로서 그 중 '다문화' 를 포함한 주제어나 언어, 인지, 적응 등의 '발달 및 특성' 관련 주제어가 역시 높은 출현 빈도(약 81%)를 나타내었다. 이는 1994년부터 2009년 6월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17곳에 발표된 국내 특수교육 논문들(총 5,487편)을 분석하여 특수교육 연구 분야의 동향과 경향성을 파악한 김애화 외(2011)의 연구에서 총 17개의 다양한 연구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중 '언어', '통합교육', '읽기'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제시한 결과와 창간호부터 2008년도까지 유아교육관련 논문집 4종과 특수교육관련 논문집 9종에 나타난 유아특수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노진아 외(2009)의 연구에서 총 10개의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아동중심 중재', '가족 참여 및 지원', '진단 및 평가' 의 주제가 상위였음을 제시한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상의 분석·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특수교육계의 다문화 관련 연구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째, 현재 국내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는 우선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양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총 4,970편의 논문 중 ‘다문화’ 관련 연구는 46편으로서 약 1%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연구의 분석 결과(김애화 외, 2011)에서 보고된 바 있듯이 건강장애와 더불어 약 1% 내외의 미약한 연구 분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가야할 것이 요망된다. 그나마 출현 빈도가 다소 높게 보고되었던 국내 언어장애 및 치료 분야의 다문화 관련 동향 분석 결과(2개의 전문 학술지: 언어청각장애연구, 언어치료연구)에서 확인된 약 2%와 6% 보다도 상당히 못미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박혜성, 2013), 이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관련 인구를 높게 인식하고 있거나 보고하고 있는(10% 이상) 외국의 경우에 대한 내용(박소현, 이희란, 2009; Cartledge et al., 2009)과도 사뭇 다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인구학적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 연구의 관심과 분발이 좀 더 요청된다.

둘 째, 현재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수교육 분야 학술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적연구의 편향을 따르고 있는 양상인데, 고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확충과 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 관련 연구 대상의 특성이 ‘다양성’에 있으므로 인종·민족별, 이주배경별 등의 다양한 연구 대상 유형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연구를 시행하거나 성찰을 동반한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상 유형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후, 다양한 기법의 양적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셋 째, 더불어 참고할 것은 현재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연구의 동향과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좀 더 이론적인 접근을 피하고 있다는 점인데 즉,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인 Bennett(2001)의 경우, 학술지 연구물이 아닌 관련 저서를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해 4가지 범주(교육과정 개혁, 평등 교육 철학, 다문화적 역량, 사회적 평등성 또는 정의)로 연구 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또 Sleeter & Grant(1987) 역시 89편의 연구 논문과 38권의 관련 저서의 분석을 통해 5가지의 분류 기준/영역(문화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교육, 인간관계, 단일집단연구, 다문화교육, 다문화와 사회 재건)을 개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연구물들이나 저술 등이 크게 누적되어 있는 일반 교육계에서도 Benntt(2001)이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분류 내용과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장인실, 차인경, 2012). 앞으로 국내 특수교육 내에서의 ‘다문화’ 관련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 그 양이 확보된다면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의 파악 외

에도 좀 더 한국적 개념모델이나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연구 동향의 분석의 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의 국내 특수 교육 연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의 활성화가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통합교육 추세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특수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생에 대한 좀 더 높은 이해와 연구의 노력이 요청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학업적 성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특수교육 배치의 오류(Oboakor, 2007; Webb-Johnson et al., 1998)를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실행에 대한 방안이 평가, 진단 부분에서의 연구와 검사도구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나 효능감(역량) 관련 국, 내외의 선행연구와 내용(이정은, 2012; 엄수정, 원종례, 2012; 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Green, 2010; Banks, 2008; Bennett, 2007)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된 결과와 방안 등을 수용·확대해 나가길 제안하며 일반교사 등 관련 전문인과의 협력과 역할 찾기도 적극 노력하기를 요망한다.

본 연구는 한국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한 연구들에 대해 최초로 특정적이지 않은 관점 하에서 전체적·포괄적인 분석을 시행하여, 현 시점에서의 특수교육 내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하지만 관련 연구 보고물이나 학위 논문, 그밖에 관련 저서들은 포함하지 않은 특수교육학술지 7종에 국한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 이주민이나 외국인거주자, 북한이탈주민이 미포함 되었거나 저조한 분석 결과임을 제한점으로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앞으로의 좀 더 풍부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활성화, 또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금화, 황보명 (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43-158.
- 곽윤숙 (2010). 유아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교육 관련연구 분석: '유아교육중심' (2000년 ~ 2010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3(2), 141-161.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06, 2007, 2008년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정책**. <http://www.mest.go.kr>.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4). **학생복지과·홍보담당관실 2014년도(3월 14일) 보도자료**. <http://www.mest.go.kr> 서울: 교육부.
-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김동일 역 (2012). **다문화특수교육: 다문화 사회의 장애·영재학생 통합교육**. 서울: 학지사.
- 김동일, 고혜정, 박유정, 최나리 (2013). 다양한 문화 언어적 배경을 지닌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향 및 교사 역할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317-335.
- 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전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24.
- 김애화, 김의정, 김은경, 서선진, 박 현, 김은숙 (2011). 특수교육 학회지 동향 분석. **특수교육연구**, 18(2), 49-78.
- 김이선 (2014). **다문화가족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다문화교육학회·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동주관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 김정미, 홍경훈 (2008). 영유아기 언어장애의 연구동향: 최근 10년간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565-593.
- 코이시스 (KOSIS) **국가통계포털(2012, 2014)**. 통계청 다문화인구통계. <http://kosis.kr> 서울: 코이시스.
- 박민정, 이병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 연구**, 45(1), 129-151.
- 박소현, 이희란 (2009). 학령전기 언어장애 연구의 최근 동향. **언어청각장애연구**, 14(1), 1-3.
- 박지윤, 박상희, 석동일 (2007). 학령전기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형태론적 분석. **언어치료연구**, 16(2), 131-145.
- 박혜성 (2013). 다문화가정 및 이중언어 사용 아동 관련 연구분석: 국내 언어장애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9(2), 29-52.
-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146-156.
- 성태제, 시기자 (2007).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안전행정부 (2014). **다문화인구통계**. <http://mospa.go.kr>. 서울: 안전행정부.
- 엄수정, 원종례 (2012). 다문화 교사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방향 제시. **유아특수교육연구**, 12(4), 51-80.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86-213.
- 이민경 (2013). '다문화교육' 연구동향과 쟁점: 교육사회학 연구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9(2), 29-52.
- 이정은 (2012). 다문화교육에서의 교사역할에 대한 특수교육 예비교사의 성과기대와 자기효능감 분석. *특수교육연구*, 19(1), 23-49.
- 장인실, 차경희 (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tt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학 연구*, 18(1), 283-302.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2010). 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전재영 (2011). 다문화교육 연구 실태를 통해 본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연구*, 4(2), 17-41.
- 정은희, 김태강, 박 윤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13-141.
- 조현근, 이병인 (2009). 유아특수교육 연구 방향성 탐색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1994년부터 2007년까지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9(2), 1-42.
- 진연선, 권유진, 이윤경 (2008). 학령기 언어발달 및 언어장애 문헌연구: 국내·외 언어병리학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594-620.
- 충청북도교육청 (2014).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계획.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 한국학습장애학회 편 (2014). 학습장애 총론: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입문서(11장. 다문화 이해와 이중언어 지원 파악). 서울: 학지사.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Allyn & Bacon.
- Bennett, C. I.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2), 171-217.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Boston: Allyn & Bacon.
- Cartledge, Gwendolyn, Gardner, Ralph, Ford, Donna Y.(2009). *Diverse learners with exceptionalities: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in the inclusive classroom*.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earson.
- Chu, S. -Y. (2011). Teacher perceptions of their efficacy for special education referral of students from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backgrounds. *Education*, 132(2), 3-14.
- Green, S. L. (2010). Multicultural education: A necessary tool for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Advanced in Special Education*, 20, 107-122.
- Law, J., Garrett, Z., & Nye, C. (2004). The efficacy of treatme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speech and language delay/disorde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4), 924-943.
- Obiakor, F. E. (2007). Multicultural special education: Effective intervention for today's school.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2(3), 148-155.
- Sleeter, C. E., Grant, C. (1987).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4), 421-445.

- Tulbert, B., Sindelar, P. T., Correa, V. I., & La Porte, M. M. (1996). Looking in the rear view mirror: A content analysis of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19, 248-261.
- Webb-Johnson, G., Artiles, A. J., Trent, S. C., Jackson, C. W., & Velox, A. (1998) The status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9(1), 7-15.

분석문헌

- 강창욱 (2010). 청각장애 특수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다문화교육적 대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119-141.
- 구효진 (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수준과 공격성의 구조 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3), 1-21.
- 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정서. **특수교육학 연구**, 44(3), 355-374.
-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11(3), 5-25.
- 권미지, 박상희, 석동일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음운변동 특성.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2), 299-318.
- 김경숙, 안은영, 이영선(2008). 교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행동특성과 이들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24.
- 김기홍 (2012). 한·일 다문화 가정 장애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일본인 어머니들의 인식 및 지원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79-111.
- 김동일, 고혜정, 박유정, 최나리(2013). 다양한 문화 언어적 배경을 지닌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향 및 교사 역할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317-335.
- 김명화, 정길순, 노진아 (2012).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전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24.
- 김성수, 이상경, 안효자 (2011).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한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구문 특성.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1), 69-88.
- 김은정, 김화수 (2011).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수정 비교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131-148.
- 김정미 (2012).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위험군 조기선별 검사 개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2(4), 105-123.
- 김화수, 김지채, 권수진 (2009).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생 이름 대기 특성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4), 331-360.
- 김화수, 이은경 (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37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3호)

11(3), 209-226.

- 박민정, 이병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 연구**, 45(1), 129-151.
- 박원경, 안성우, 서유경, 신영주 (2007). 국제결혼가정아동의 언어 능력과 지식기반, 처리기반에 대한 차이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11-230.
- 박지윤, 석동일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연령과 평균형태소길이의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55-463.
- 박찬영, 최성규 (2013). 원적학급 교사의 농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89-108.
- 박찬영, 최성규 (2013). 특수학급교사의 농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2), 45-66.
- 박채진, 이효신, 김창걸, 서석진, 진미영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의 콘텐츠 요구도 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401-417.
- 봉귀영, 이소현 (2013).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모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 연구**, 47(4), 113-138.
- 선애순, 권순향 (2010).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255-272.
- 선영애, 박남수 (2009). 다문화교육 활동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3), 305-319.
- 송복선, 이지윤, 최양규 (2013).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조음음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257-271.
- 신수진, 한성희, 이규옥 (2011).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1), 299-328.
- 엄수정, 원종례 (2012). 다문화 교사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방향 제시. **유아특수교육연구**, 12(4), 51-80.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오소정 (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친숙도와 비유정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2), 145-164.
- 우윤정, 권순복, 김주영, 이강대 (2012). 북한이탈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유적 언어 이해 능력 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3), 383-402.
- 원종례 (2008). '장애' 이슈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비교사교육의 방향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8(3), 155-174.
- 이상희, 고영림, 이현래, 정태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 아동 자녀의 언어구사에 관한 실태 조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395-412.
- 이은경, 김화수 (2011). 8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317-331.
- 이은경, 김화수 (201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 양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83-201.

- 이은주, 김영태 (2010). 언어장애 및 이중언어 아동들의 비언어과제 수행에 대한 메타분석. **특수교육**, 9(3), 49-70.
- 이정은 (2012a). 다문화교육에서의 교사역할에 대한 특수교육 예비교사의 성과기대와 자기 효능감 분석. **특수교육연구**, 19(1), 23-49.
- 이정은 (2012b).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일반교육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 간 역량 비교 분석. **특수교육**, 11(1), 81-105.
- 정금자, 이영숙 (2013). 사회극놀이를 통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 연구**, 48(1), 367-393.
- 정영주, 노진아, 정길순 (2010). 동극을 통한 다문화적 반편견 교육 활동이 유아의 편견과 장애 유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01-177.
- 정은희, 김태강, 박 윤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13-141.
- 주재연, 신현기 (2013). 어머니의 모국문화기반 균형적 문해교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20(1), 67-95.
- 최성규, 정승희, 박원경 (2011). 설문지 제시 순서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농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비교. **특수교육연구**, 18(1), 201-225.
- 최송아, 홍경훈 (2012).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관용어 이해 능력 비교분석. **특수교육**, 11(3), 167-187.
- 최은정, 윤은미, 이소희, 이은경 (2008).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 능력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9(3), 1-16.
- 최현옥,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황상심, 김화수 (2008). 다문화환경 조음음운장애아동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음운변동 패턴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9(4), 329-348.
- 황상심 (2009). 다문화가정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65-281.

The Tendency of Research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that it shows up in Korean Special Education Academic Journal

Park, Hye-Sung

Young-Dong University

Park, Hyun-Sook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arch for a basis of research and fulfillment to be proceed with having further interest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until now and looking for its implications after analyzing and examining the papers related to ‘multicultural’ published in the journals.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46 treatises that deal with multicultural matters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education, selected out of 4,970 registered from 2000 until 2013 in Korean, in terms of distribution, target group, research method, theme and contents(6 sub-theme & 5 categ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was that such treatises began to be published from 2007 with an increase in political interest and support, and since then their number has been increased or retained. Second, adults who finished off their school comprised the highest percentage (28%) of target groups, followed by preschoolers(26%) and school children(17%). Adults and preschoolers showed similar percentages. Such high percentages were observed in combinations of two or more age groups or in other types in literature(28%).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arget groups, comparative groups composed of infants and children and single groups composed of infants, children or adult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26% each). And it was a very small piece of the type on disable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tudies(13%). Third,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quantitative method, *i.e.*, ‘comparison’ or ‘survey.’ Actually, such methods were found to comprise 76%.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studies fell under 6 sub-theme and 5 category(characteristics/survey/intervention/assessment

-related/other studies). Among that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accounted for by 'th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r abi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or bilingual people' and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ultiple cultures, and the need for them' (50% and 22% respectively). Lastly, the studies embody a total of 78 keywords, also high frequency(81%) of which were accounted for by 'Linguistic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Cultures.' The directions, tasks and limitations, etc of future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Multi-culture,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research group and type, research mehtod, trends of researches

논문 접수: 2014. 08. 04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2

<부록 1> 논문 분석 내용의 예시 - 01 '특수교육학연구' 학술지 분(일부분)

번호/저자(년도)	분석 내용	연구 대상/인원수(지역 및 연령)	연구 목적 및 방법(연구 방법 유형)	연구 결과	연구 특성 및 연구 주제 & 핵심어
1. 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2007)		국내 농어촌지역(충청 및 전라도) 지역 거주, 만 3-6세의 다문화가정유아-147명 & 일반가정유아-143명/ 총 290명	국내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발달양상을 파악하고자, 언어 및 정서·사회성 발달 검사(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대처능력)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의 발달을 다문화가정 유아(A집단)와 일반가정 유아(B집단)를 비교하여 살펴(양적 연구)	*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유아는 1) 언어발달 수준이 동일지역 일반가정 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 2) 정서·사회성 발달증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및 대처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 언어발달 수준에 따른 정서·사회성발달수준을 비교 하였음; 3) 언어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및 대처능력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공격성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 A집단의 언어 및 정서·사회성 발달의 문제점 시사 & 언어발달지연이 정서·사회성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을 시사	다문화가정 유아 집단과 일반 가정 유아 집단 간 언어 & 정서·사회성의 발달 특성 비교/파악 연구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 정서·사회성 발달
2. 박민정, 이병인 (2010)		서울지역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담임 교사 5명 & 비참여 대상 다문화가정 유아 5명(5세 3명 & 3, 4세 각 1명, 어머니 출신 국가-필리핀, 중국, 러시아)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을 살펴보고, 교사와의 심층면접 & 다문화가정 유아(5명) 대상 비참여 관찰(질적 연구)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1)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이라는 증심현상 안에서 '교수-활동 참여의 어려움' 과 '놀이 활동 참여의 어려움' 을 경험. 이런 현상의 인과조건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과 '부모의 양육태도' 로 나타난다. 2) 증심 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교육여건의 미비' 와 '가정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을 나타내었음. 증적적 조건으로는 '교사와 또래의 지원' 과 '유아의 언어 능력' 으로 나타났다. 3) 증심현상에 대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주변세계와 상호작용 하며 대처할 작용/상호작용은 '눈치보기, 무조건 참기, 모방하기, 또래와 어울리려는 시도하기, 힘을 사용하기' 의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서 '심리적 불안', '적응노력', '제한된 관계' 를 나타내었음. & 다문화가정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유형: 주변탐색형, 모방하기형, 관심말기형, 무력사용형으로 나타났다. ->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 습득을 위한 증제, 개발, 가족 지원 방법 모색에 도움이 될 것임.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보육 교사를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다문화 유아의 적응 과정 & 상호작용 행동 유형 특성 파악 질적 연구, 근거이론, 다문화가정 유아, 가족지원
3. 봉귀영, 이소현 (2013)		3쌍의 다문화가정 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 (211- 자폐 여 33- ASD 남, 45-ASD 남)와 어머니 (베트남-32, 베트남-32, 몽골-32세)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내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기초선 + 총 20회기 부모 교육 P+ 피드백 제공 + 4주후 유지 확인: 각 회기 시 1회씩 가정 내 일반화 측정 (양적연구-단일대상 연구)	3쌍의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발생률이 증가함. (=>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다문화가정 내 자폐범주성장애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근거 기반 연구임)	다문화가정 장애유아 (ASD)대상 ,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증제-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포함-효과 실험 연구 자폐 범주성 장애, 다문화가정, 반응성,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사회적 상호작용, 부모교육
4. 정금자, 이영숙 (2013)		만 5세 유아로 실험집단 60명(일반가정유아-50명, 다문화가정유아-10명) & 비교(혼합 유아)집단 60명/ 총 120명	사회극놀이를 통한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사회적 적응능력 & 순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관련문헌과 교육과정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본시 2단계) 확장단계 4단계로 다문화교육활동을 체계적이고 구조화하여 전개하고, 실험 & 비교 집단에 혼합요인 설계를 실시 적용함(양적연구)	1) 사회극놀이를 통한 다문화교육활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2) 다문화교육활동은 대상을 분리하여 실시하기 보다는 전 유아(일반유아+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구성, 적용되어야 함. 3) 지식위주의 이야기나누기 교육활동보다는 체험중심, 과정중심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문화/언어/인종/국가와 같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배워 사회적 행동이 증진될 것임.	혼합 유아집단 대상, 다문화교육활동-사회극놀이-증제 효과 실험(비교)연구 사회극놀이 다문화교육 활동, 사회적 적응능력, 사회적 순응능력